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2℃/9℃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음력 3월 19일)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석간



구독신청 02-722-8165

제 1034호



“낙태죄 폐지 반대!” 18일 낮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생명보호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쳤다.

낙반연 제공

낙태법 유지를...”여성·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18일 광화문에서 국내 생명보호단체들 주최로 ‘생명보호대회’ 개최

18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보호대회”가 국내 생명보호단체 주최로 개최됐다. 생명보호대회는 “여성고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란 주제로 낙태법 유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였다.

주최 측은 낙태법을 바꾸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함을 밝히고, 낙태법은 지금까지 처벌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했었음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모든 생명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태아 역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주최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인데, 임신 12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

다는 뉴스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만일 그렇게 되면, 낙태 시술의 96%가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낙태가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무제한적 허용이 되는 것”이라며 “낙태법 변경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최 측은 “생명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신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시민 발원과 공동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보호대회에서 박유경 교수(경희대, 낙태반대운동연합 이사)는 “낙태죄 폐지는 출산을 선택한 여성에게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며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나라에서 정부가 미혼모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하며 여성운동에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해 낙태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몸으로 이해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라며 “태아는 독립적 개체로, 모체 안에서 10개월 동안 자랄 뿐이지 엄마와는 다른 인간 생명”이라 주장했다.

윤성원 씨는 발언을 통해 “낙태죄가 있어야 할 이유는 낙태한 여성을 혼내주기 위해서 아니라, 낙태라는 공격으로부터 여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며 “낙태죄는 태아와 여성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장치”라 했다. 미혼모 최수영 씨는 “잘못을 한 건 제 아이가 아닌데 왜 죽여야 하는 건 아이인가”라 묻고, “부디 낙태법 폐지로 생명을 죽이는 선택이 아닌, 엄마와 아이 두 사람 모두 살리는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양부모인 이현경 씨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말했고, 임신부인 박선영 씨는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태아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여성의 인권과 함께 태아의 인권도 지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부 권광희 씨도 “부모라 해서, 엄마라 해서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며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낙태법 폐지가 아닌,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지원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과, 책

입지지 않는 남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제도적 장치”라 주장했다.

성가치 교육 강사인 박경희 씨는 “국가가 낙태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낙태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현 교수(발생분자생물학자)는 “생명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 없이 낙태죄만 폐지하면, 여성은 더 큰 피해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낙태를 고민했다 결국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던 함수연 씨는 “모든 여성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소망 한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국가가, 지역사회가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는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프로라이프교수회,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프로라이프여성회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함께 했다.

더불어 함께 한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 헌법재판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인다. 기간은 오는 5월 17일과 18일, 23일과 24일이며, 여성이 신청 가능하다. 오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낙태죄 위헌(사건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개 변론의 자리도 마련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성명서 전문 4

이내 기사

트럼프 “폼페이오, 지난주 김정은과 만나” CNN “회담 준비 잘 돼… 장소 선정은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북한에서 만났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만남이 매우 원만하게 진행됐으며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안은 현재 조율 중”이며 “비핵화는 전 세계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지명자가 “북한을 막 떠났다”는 표현을 쓰면서, 김정은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그와 매우 잘 어울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의오찬에 앞서 폼페이오 지명자의 인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폼페이오는 좋은 국무장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며 매우 독특하면서도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준 과정을 거치는 데 폼페이오 지명자가 잘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은 인준 과정이 매우 잘 해결될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며 미국은 폼페이오 지명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이날 조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극비 방북과 관련해, CIA

국장 신분으로 폼페이오가 방북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내놔다.

리처드 블루멘틀 상원 의원은 정상회담 전 사전작업을 위한 고위급 만남은 CIA 국장이 아닌 국무장관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 31일부터 1일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미 행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해 “매력적이고 회담에 대해 준비가 잘 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두 사람의 면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극비 회동 사실을 확인하면서 “면담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으며,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난제가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몇 주간 여러 가지 가능한 장소들을 거론해왔다”며 올란바토르(몽골), 판문점, 제주, 서울, 스톡홀름(스웨덴) 및 제네바(스위스) 등 ‘중립적 도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평양 등을 거론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제외한 5개 장소를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평양뉴스

北,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 역점... 新노선 채택 가능성

20일 당 전원회의 개최

북한이 오는 20일에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에 더욱 역점을 두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3월 6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이 채택됐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당의 중요 과업이나 조직·인사 문제가 결정된다”고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혁명발전의 역사적 시기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 포기 선언이나 비핵화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지 포괄적으로 협의가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북한의 체제안전권을 보장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업 경남대 교수는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두는 식으로 비핵화 의지를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 내부를 결집한 ‘내부의 적’인 미국과의 관계 변화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끝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북미 관계개선을 정당화할 논리로 경제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또 “국가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3차 년도인 올해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변곡점을 마련해야 강성국가의 열마루로 달려갈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장 실장은 “핵?병진 노선을 수정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선군혁명노선’, ‘병진노선’에 이어 “이번에는 경제와 외교,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에 더욱 역점을 두는 덩샤오핑식 대외관계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데다 북미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를 맞아 주요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평양뉴스

여의도순복음교회, “평양 조용기심장병원 공사 재개추진 의향서 체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북한 당국과 평양 조용기심장병원 공사 재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7일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가 북측과 조용기심장병원 사업 관련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SPN 서울평양뉴스’에 밝혔다.

조용기심장병원은 지난 2007년 12월

당시 공사비 200억원으로 평양시 대동강 구역

동문2동에 연면적 20,252㎡(약 6,126평)에 병상수 280 beds 규모로 지어 2010

서울평양뉴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홍보대사에 배우 이성혜 위촉

2011년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가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SIAFF)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영화제는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이 함께 걷자’라는 의도로 주제를 ‘함께(With)’로 정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스코리아로 당선된 이래 끊임없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성혜 씨가 영화제의 흥분대사사로 합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2011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된 이정은 씨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이다.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패션디자인 과정을 휴학 중인 그녀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토크콘서트 '힐링 유'의 MC로 활약한 후,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을 겸비한 이성혜는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의 생활과 국내 청소년들의 학업을 위해 미스코리아 당선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 ‘이젠 아프다고 말해요’ 등의 저서를 통해 흔들리는 청춘의 회복을 응원했고, 국제 NGO월드휴먼버리지, 국제백색근로자기구(IUV)의 홍보대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홍보다사에 위촉된 소감에 대해 이영혜는 “서울국제사람영화제에서 참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갈 수 있게 소망한다. 특별히 이번 영화제에서 소기텔 영화들을 통해 메타르코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영화 속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홍보다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



배우 이성혜

고 전했다.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이란 비전으로 달려온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사무공은 “올해 ‘함께(With)’란 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거고 고민한 것도 사실이지만 영화를 통해 각박한 사회에 필요한 사랑, 용기, 응원을 전하기 위해 주제를 ‘함께(With)’로 공표했다. 누군가만의 ‘함께(With)’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4월 24일에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홀에서 개막해 29일에 폐막한다. 총 11개국의 20개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영화제의 거장 크쥐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와 잉그마르 베르리만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부터 ‘필름포럼 초이스’란 프로그램을 통해 신작 영화를 개별的に 앞서 미리 상

대해 생각하며 함께 걷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4월 24일에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홀에서 개막해 29일에 폐막한다. 총 11개국의 20개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며 영화계의 거장 크쥐쉬토프 키에슬로프스키와 잉그마르 베르만 등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 '필름포럼 초이스'란 프로그램을 통해 신작 영화를 개별인에 앞서 미리 상

영한다. 초청된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신촌의 좋은 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상영하며, 영화와 더불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 중이다.

한편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로 출발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의 가치를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선별하여 대중에게 소개하는 영화제이다.

이나라 기자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 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주제는 ‘함께’(With)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gape Film Festival)가 공식포스터를 공개했다.

참여하는 관객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사랑을 '함께' 그러가고 채워가는 영화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형상화 시켰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펜을 들고 함께 영화제를 그려나가는 모습으로 주제를 드러냈다. 소외되는 이없이 모두가 축제를 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영화제를 향한 꿈보다 단겨웠다.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선’을 비전으로 달려온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올해 주제는 ‘함께(With)’다. 사무국은 “‘함께(With)’란 말이 무엇이 결코 가해지 않아 고민한 것도 사실이지만 영화를 통해 각박한 사회에 필요한 사랑, 용기, 응원을 함께 전하며 걸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11개국의 20개 작품이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계의 거장 ‘키에슬로프스키 연작전’, 앙드레 베르히만, 짐자루스의 작품에서부터 보편적 인류애로서의 사랑의 의미를 담은 ‘아가페 초이스’, 기독교 신앙의 복음과 가치를 다룬 영화들을 소개하는 ‘미션 초이스’, 하반기 국내 상영 예정인 신작을 선공개 하는 ‘필름포스트 초이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사전제작지원 받은 다편 영화들을 감상



하는 'SIAFF단편선'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영화제는 오는 4월 24일에 이화여자대학교 ECC삼성홀에서 개막해 29일에 폐막한다.

조정된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신
촌의 좋은 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상영하
며 영화와 더불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흥보대
사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성혜가 위
촉되어 함께 사람을 전한다.

이나라 기자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 공개 절망에서 시작된 사랑, ‘끝에서 시작되다’

오는 24일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STAFF)가 기자회견회를 통해 개막작 ‘끝에서 시작되다’(Same Kind of Different As Me)를 공개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마이클 카니 감독의 ‘끝에서 시작되다’(Same Kind of Different As Me)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사람을 통해 회복되고 용서하며 나아가는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 원작을 개설했다.

나름대로 성공한 예술경매사 론 홀(그
 렉 키니어)은 자신의 부정직한 결혼생활
 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방법으로 아내
 디보라(르네 켈리가)를 제시간 숙소에 보
 호소에서 함께 봉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곳에서 한때 범법자였던 때돌이 무어(디
 몬 하슨수)를 만나 그의 삶을 바꾸기 위
 한 여정을 시작한다. 영화는 포기하지 않
 고 작거나나 내밀었던 사랑의 손길이지
 자신과 이웃에게 미치는 삶의 변화와 영향
 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서울국제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 영화 '끝에서 시작되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제공

사랑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주제인 ‘함께 (With)’와 더불어,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 약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소통을 청하고 영화를 통해 우리 개인과 사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SIAFF)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제공

회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메시지를 지닌 영화다. 회복과 사랑의 가치를 깊이 있는 여운의 마음과 함께 관객 한 기대와 선정 배경을 밝혔다.

메시지를 지닌 영화다. 회복과 사랑의 가치와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개막작에 대해 이나래 기자

이나라 기자



my KIDS


월드비전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월드비전 헌신가
봉어랭 자수

①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

② 모바일용 mykids.wv.or.kr도 접속해보세요.

mykids.wv.or.kr
🔍 → ↩

③ 검색 결과를 확인하세요

1. 월드비전 Family Care와 함께 아동 보호가 담긴 커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아동과 전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을 사는 자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전 1회 아동에게만 보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④ 후원금을 후원하세요

1. 월 3만원의 후원금 3개월간 후원할 시 아동의 영양 보전, 교육, 의료 및 교육에 혜택을 줍니다.
2. 후원후원은 한 아이의 생계를 넘어 꿈을 키우고 한 자라는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